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2023년도 교육안전위원회 －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서

2023. 4. 4. ~ 4. 9.
호주(시드니)

교육안전위원회

목 차

I. 공무국외활동 개요

| | |
|------------------|---|
| 1. 방문개요 | 1 |
| 2. 주요 방문기관 | 1 |
| 3. 세부일정 | 2 |

II. 방문국가 개요

III. 국외출장 수행 내용

| | |
|----------------------------|----|
| 1. 시드니 주 교육청 | 8 |
| 2. 한국교육원, 한국문화원 | 17 |
| 3. 아서필립고등학교 | 22 |
| 4. 시민참여시설, 어린이보호구역운영 | 26 |
| 5. 소방박물관 | 33 |
| 6. 블루마운틴 호텔학교 | 37 |
| 7. 저비스베이 산불진화소방단 | 42 |
| 8. 저비스베이 생태환경공원 | 47 |
| 9. 시드니 소재 대학 | 50 |
| 10. 패딩턴 도심재생시설 | 53 |
| 11. 지역행사 참관 | 56 |
| 12. 주립미술관 | 59 |
| 13. 시드니 주 소방서 | 61 |

| | |
|-----------------|----|
| IV. 연수 후기 | 64 |
|-----------------|----|

I. 공무국외활동 개요

1 방문 개요

- (목 적) 교육, 시민안전, 소방분야 등 우수 정책 사례 벤치마킹
 - 영국식 학제 및 교육 운영 자료 수집 및 직업교육과정과 시민안전 및 소방 방재 정책 등을 견학하여 세종시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시책 발굴
- (기 간) 2023. 4. 4.(화) ~ 4. 9.(일) / 4박 6일
- (행선국) 호주(시드니)
- (참여자) 8명(교육안전위원 4명, 전문위원실 직원 3명, 의회사무처 직원 1명)

| 구 분 | 성 명 |
|-----|---------------------|
| 의 원 | 김현옥, 김학서, 김효숙, 안신일 |
| 직 원 | 선우명수, 김경진, 김진형, 문건아 |

2 주요 방문 기관

| 연번 | 선정 사유 | 기관명 | 비 고 |
|----|---------------|--|---------|
| 1 | 영국식 교육학제 및 평가 | - NSW 주 교육청 (NSW Department of Education) | 전문통역 |
| 2 | 국제교류 및 교육현안 | - 시드니 한국교육원 (Korean Education Centre) | 원장 간담회 |
| 3 | | - 시드니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re AU) | 부원장 간담회 |
| 4 | 초,중,고 통합학교 모델 | - 아서필립고등학교 (Arthur Phillip High School) | |
| 5 | 스쿨존 및 교육지원시설 | - 스토리팩토리, 파라마타 공립학교 (Story Factory, Parramatta Public School) | |

| 연번 | 선정 사유 | 기관명 | 비 고 |
|----|---------------------------------------|---|------------------|
| 6 | 소방 홍보 및 교육 | - 시드니 소방박물관 (Museum of Fire) | |
| 7 | 직업교육 지원 | - 블루마운틴 호텔학교 (Blue Mountains International Hotel School) | 입학사정관 |
| 8 | 재난대비 대응 | - 산불화재 진압 소방서 (Jervis Bay Rural Fire Brigade) | |
| 9 | 대학연계 교육지원시설 | - NSW대학교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 WNSW대학 교 연계방문 |
| 10 | 지역자원활용 도시 재생 학생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용 시설 | - 패딩턴 도시재생 환경 공원 (Paddington Reservoir Gardens) | |
| 11 | 행사 안전 | - 록스 지역 행사 (The Rocks Market) | |
| 12 | 박물관 연계교육 | - NSW주립 미술관 (Art Gallery of New South Wales) | |
| 13 | 도심 방재 시설 | - NSW주 소방서 (NSW Fire Station)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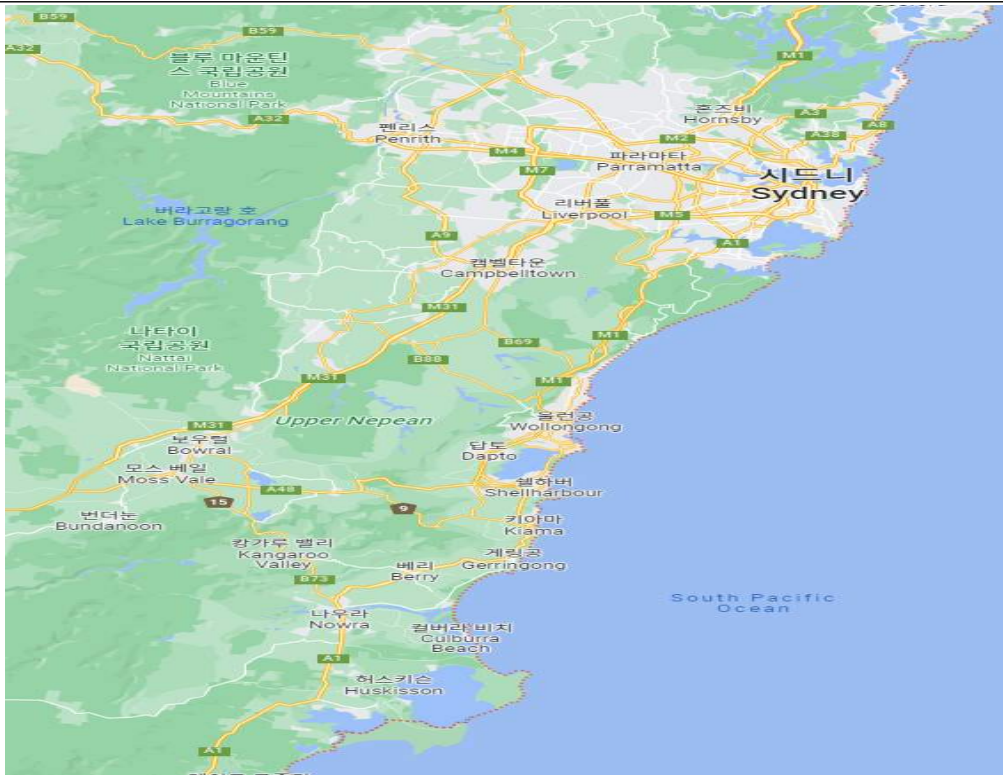
3

세부 일정

| 일자 (요일) | 방문지 | 시간 | 방문기관 | 수 행 내 용 | 이동 수단 |
|-------------|-------------|-------|--------------|---|----------|
| 4.4. (화) | 인천 | 20:00 | - | - 인천 국제공항 출발(20:00) | 항공 |
| 4.5. (수) | 호주 (시드니) | 08:00 | - | - 시드니 국제공항 도착(08:00) | - |
| | 시드니 | 10:00 | NSW 주교육청 | - NSW교육청 브리핑, 교육통계 및 평가센터 (CESE) 운용 간담회 | 차량 |
| | | 13:00 | 시드니 한국교육원 | - 한글교육, 학교 교류 등 국제교육 교류 현황 및 시드니 교육 정책 협의 | 차량 |
| | | 14:00 | 시드니 한국문화원 | - 한국문화교육 및 다문화교육 교류 방안 | 차량 |
| | | 15:00 | 아서필립 고등학교 | - 초,중,고 통합학교 운영, 학교내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및 진로 진학 지도 방안 | 차량 |
| | | 16:00 | 스토리 빌리지 | - 스쿨존 운영 및 주민 참여 교육시설 운영 | 차량 |

| 일자 (요일) | 방문지 | 시간 | 방문기관 | 수행내용 | 이동 수단 |
|-------------|-----|-------|-------------------------------------|-----------------------------------|----------|
| 4.6. (목) | | 09:00 | 소방박물관 | - 학생 소방 박물관 체험 시설 견학 및 프로그램 운영 사례 | 차량 |
| | | 13:00 | 블루마운틴 직업학교 | - 직업 전문 학교 운영 과정 제반 사항 | |
| 4.7. (금) | | 07:30 | - | - 지역이동 | 차량 |
| | | 13:30 | Jervis Bay Rural Fire Brigade | - 산불진화전문소방서 장비 운용, 대규모 재난대비 방안 | 차량 |
| | | 15:00 | 저비스베이 자연환경공원 | - 자연친화공원 생태환경 프로그램 및 공원 안전시설 | 차량 |
| 4.8. (토) | | 09:00 | NSW대학교 | - 대학 연계 교육 지원 센터 방문 | 차량 |
| | | 10:00 | 패딩턴 공원 | - 무료 문화공원 조성 안전 시설설치 | 차량 |
| | | 13:00 | 지역행사 | - 행사 안전 관리 운영 | 차량 |
| | | 14:00 | NSW주립 미술관 | - 박물관 연계 교육 프로그램 | 차량 |
| | | 15:30 | 시드니 주립소방서 | - 도심 방재 시설 운용 | 차량 |
| 4.9. (일) | 인천 | 09:30 | - | - 시드니 국제공항 출발 | 항공 |
| | | | (국가이동) | - 인천 국제공항 도착(19:30) | - |

II. 방문국가 개요



- 국 명 : 오스트레일리아 연방(Commonwealth of Australia)
- 수 도 : 캔버라(Canberra)
- 방문지: 시드니(Sydney, 뉴사우스웨일즈 주)
- 방문지 면적 : 12,367km² (전라남도 면적과 유사)
- 방문지 거주 인구 : 5,312,163명(2019년 기준)
- 공용어 : 없음(사실상 영어)
- 정 치 : 영연방 왕국, 입헌군주제, 연방제, 의원내각제
- 방문지 GDP : 4,610억\$(대한민국 18,102억\$)
- 1인당 GDP : 90,000\$(대한민국 34,983\$)

일반현황(호주)

□ 국가 현황

호주는 인구 약 2,300만 명으로 6개 주와 2개의 자치령으로 구성된 연방 국가로 정식 명칭은 오스트레일리아 연방(Commonwealth of Australia) 임

오세아니아 남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위치한 절반 이상이 고원지대인 대륙으로, 국토면적은 774만km²로 한반도의 약 35배, 남한의 약 80배임
수도는 캔버라이며, 주요 도시는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퍼스, 골드코스트, 애들레이드 등으로 1901년 영국의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하여 영연방에 통합되었음

국가형태는 입헌군주제이고, 형식상 영국 왕이 국가원수이나 실질적으로 연방정부는 연방총독(Governor-General)이, 6개 주정부는 총독(Governor)이 대표하고 있으며 정부 형태는 영국식 내각책임제에 미국식 연방제도를 도입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체제임

전체인구의 98%이상이 백인이며, 사용언어는 영어로 1960년부터 실시된 성공적인 복지정책으로 인하여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환경 보존과 복지정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음

방문도시인 시드니의 경우 뉴사우스웨일스주 최대 도시로 12,367km² (전라남도 크기) 면적에 5,312,163명(2019년 기준) 거주하고 있음

□ 방문 도시 현황

시드니 대도시권은 서쪽 블루산맥, 북쪽 호크스베리강(江), 남쪽 보터니만(灣)까지 뻗어 있으며, 전국 인구의 약 1/4이 몰려 있는 이 나라 최대의 도시임

중생대의 사암층의 대지와, 서쪽 내륙에는 이암질(泥岩質)의 파랑상(波浪狀)의 저지를 사이에 두고 해발고도 1,000m 전후의 블루산맥이 남북으로 뻗어 있음

대지의 계곡은 하류지역에서 익곡(溺谷)을 이루어 포트잭슨만(灣), 보터니만 등을 이루며, 포트잭슨만의 남안 일대는 세계 3대 미항(美港)의 하나인 시드니항의 항역(港域)이 되어 있으며 항구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무역액의 1/4, 뉴사우스웨일스주 무역액의 3/4을 취급 함

온화한 기후로도 유명하며, 연간 평균기온은 21.9℃, 가장 더운 달이 26.5℃, 가장 추운 달이 17.4℃로 연교차가 적고 연평균강수량은 101mm이며, 1년 내내 강수량이 고른편 임

1788년 1월 26일, 보터니만으로부터 포트잭슨에 들어온 총독 A.필립은 유형수(流刑囚) 770명, 군인 250명을 데리고 이곳에서 최초의 식민지 건설을 개시하고, 시드니라는 이름은 당시 영국의 각료였던 시드니경(卿)의 이름을 딴 것으로 그 후 시드니는 오스트레일리아 개발의 중심지로서 발전 하였음

천연의 양항(良港)이라는 점과 육상교통로의 요지라는 사실도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1842년 시제(市制)가 시행되었고, 1851년 부근의 배더스트에서 금이 발견된 후로 인구가 급증하였음

시드니는 또한 이 나라 최대의 상공업도시로, 섬유·제분·정당(精糖)·피혁·기계·화학·자동차·조선·정유(精油)·제재(製材)·제지·차량·농기구 등의 공업이 발전하고, 공업지대는 시의 남부와 서쪽 교외 일대에 분포함

관청·금융기관·회사 사무실·백화점·고급상점이 있는 도심 바깥쪽에는 조용한 주택지가 자리잡고 있는데 특히 포츠포인트 등이 최고급 주택지로 알려져 있음

시드니는 문화와 교육의 중심이기도 하며, 시드니대학(1850년 창립)·뉴사우스웨일스대학·로마가톨릭 교회·성공회 교회·오스트레일리아 박물관·국립미술관·도서관 등이 있고, 오페라하우스도 1973년에 완성되었음

시내에는 2개의 국립공원(300km²)과 자연보호지 이외에 하이드파크·센테니얼파크 등의 공원·정원과 각종 경기장이 있으며, 포트잭슨만과 남쪽의 보터니만은 경치가 아름다운 관광지로 알려져 있음

Ⅲ. 국외출장 수행 내용

시드니 주 교육청

□ 방문 개요

- (일시/장소) 4. 5.(수) 10:00 ~ 12:00 / 시드니 교육청 협의회실
- (참 석 자) 12명 / 학교담당자 外 3명, 동시통역 1명, 의회 8명
- (방문목적) 호주 교육과정 운영의 특징, 학생 평가 자료 활용 방안, 코로나 이후 교육회복 및 미래교육 정책 방안

□ 시드니 교육 현황

- 시드니를 비롯한 호주의 학교들은 공부 만큼이나 비교과 활동을 매우 중요시 한다. 체육 활동과 체험 학습 시간이 한국에 비해 잘 운영되고 있음
- 시드니의 중고등학교는 크게 공립(Public School)과 사립(Private School)으로 나뉘며 공립 중에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명문 공립 학교들은 Selective High School이라고 명칭함
 - 한국의 특목고와 비슷한 중고등학교들로 초등학교 6학년 때 Selective High School Test이라는 시험을 후 입학할 수 있는 학교임

□ 주요 질의 및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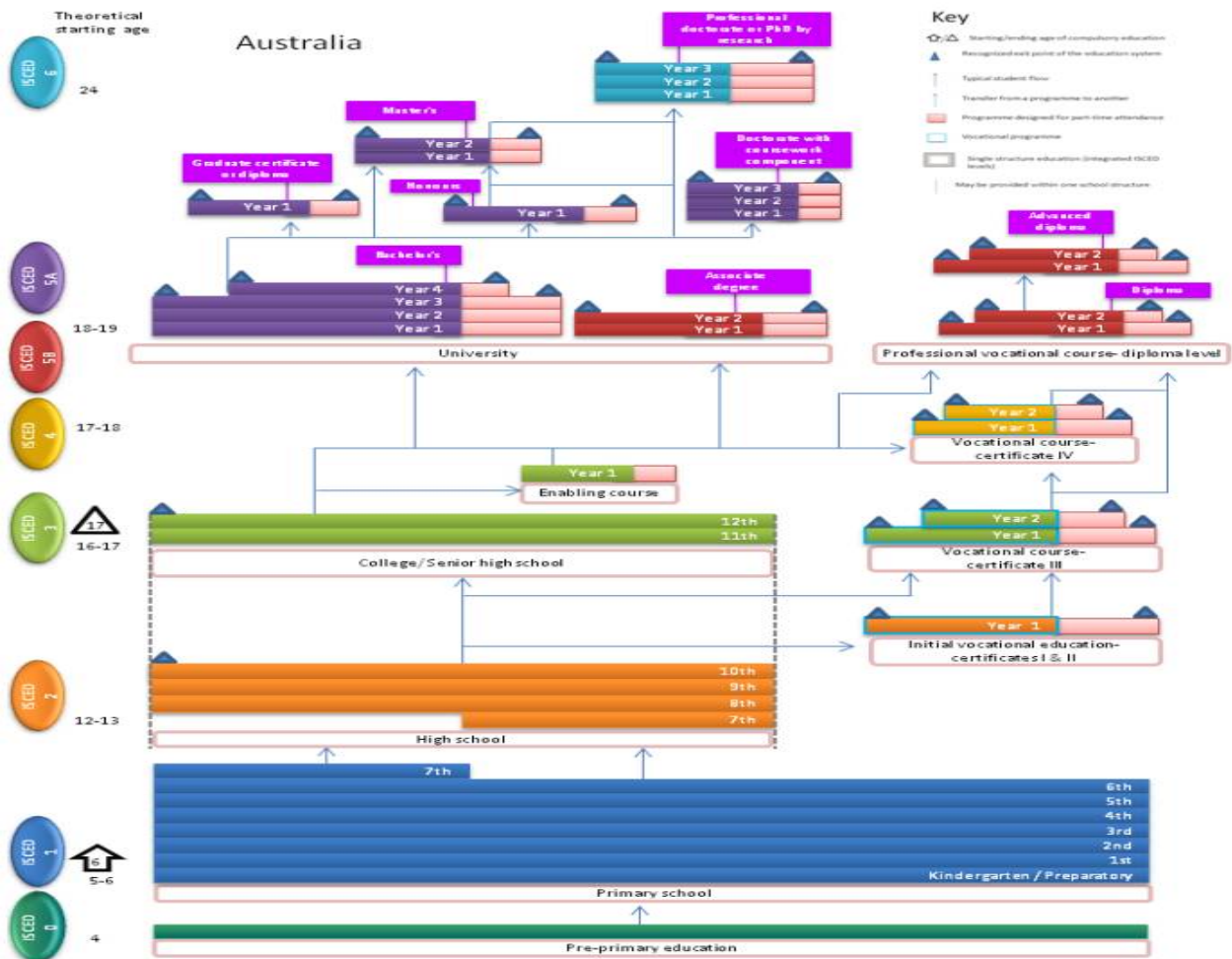
[학생지원부: 아레나 크리스토퍼]



○ 간단한 현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 호주 인구의 64%는 NSW주에 거주하고 그 외 해안가에 분포함,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어울려서 구성하며, 호주 교육부 및 주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부모 배경 국가에 상관없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주고자 노력하고 있음
- 주교육청은 관내 공립학교 전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 면적의 10%에 인구 32%가 거주지를 구성하고 있음, 동쪽 인구분포가 높으며 서쪽으로 갈수록 인구밀도가 낮아짐
- 지역별로 계절이 다양하여 겨울철 동계스포츠 활동도 가능한 지역도 있음, 주 교육청 공립학교 학생은 100만명, 교직원은 10만명, 학교는 2천여개로 주 전체 예산의 25%를 이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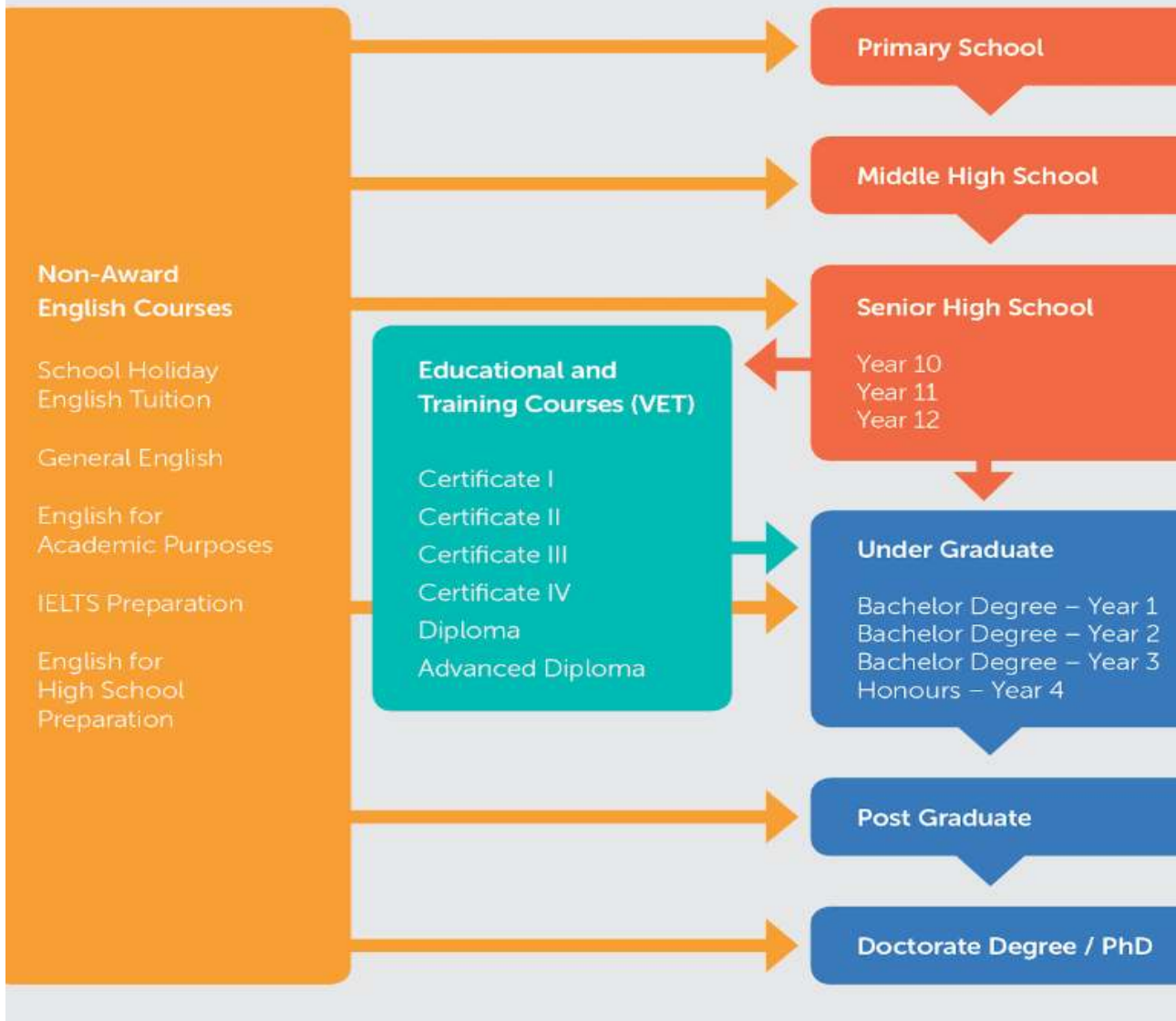
- 한국은 국내 예산의 23.5%를 교육 분야에 사용하고 있음, 학교 운영 방식과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 바람
 - 한국은 학교급(초,중,고)이 나누어 운영하는 반면, 호주 교육은 중고등학교 교육을 별도로 분리하지는 않음. 초등교육 중등교육 이원체제로 13년 정도 교육기간을 운영함
 - 학교에서는 표준화된 시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베스트 스타트 시험으로 아이들의 학습 영역을 측정함으로써 학습장애가 있거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조기에 파악하려 노력함
 - 국가 전체 시험으로 '레프만'시험을 진행하며 초등 3학년부터 5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음, 이 시험은 합불여부를 등재하지 않는 학생 개인의 학습 진도 파악을 위한 것으로 측정결과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경우 추가 학습 및 보조교사 지원 등의 정책이 있으며 문해력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임
- 한국에서도 코로나 이후 일상회복 측면에서 교육회복 과제를 부여하고 있음, 시험결과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학생의 경우는 별도로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 학생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학생 개별화 지도 과정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선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을 지원하고 있음
- 한국에서는 학업성적 저조학생의 학교프로그램 참여하는 것이 부정적 인식이 내포되어 참여가 어려운 점이 있음, 학생들을 유인할 수 있는 별도의 정책지원은 있는지?



<호주 교육 제도, 출처 OECD현황 자료>

- 호주에서는 학교에서 선별하여 지도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의 부정적인 인식이 적음(없음), 선택티브 시험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어서 최근 가정에서 사교육을 별도로 시키는 경우도 있음
- 호주는 방학기간에 사교육(학원)도 방학을 이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한국과는 다른점으로 생각함
- 졸업학년인 12학년에는 졸업 자격증을 취득하는 제도를 운영중으로, 10학년까지는 의무교육을 거치고 이후 17세가 될 때까지 직업교육 및 기타 훈련과정을 수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Australian Qualifications Pathway



<호주 평가 제도, 출처 <https://www.kiecglobal.com.au/>>

- 호주는 한국과는 다르게 2학기제가 아닌 3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방학이 다소 짧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기간을 충분히 가지려 하고 있음
- 수업 운영시간은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 또는 3시 30분으로 모든 학교가 비슷하게 운영하며 별도의 저녁 클래스는 없음

- 학교 밖에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특별한 사유로 귀가가 어려운 경우는 학교에 신청하여 5시까지 머물 수 있음
- 영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영어학습에 어려운 학생들은?
 - 집중 영어센터 및 단기 어학과정을 거치고 있어서 어학부분에서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운영하고 있음, 다만 학생 개별적으로 어학실력향상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학생들은 1학기(12주)에서 2학기 정도 수강하면 일반 과정 수강에 큰 어려움은 없었음
 - 동일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제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상급학년으로 이행할수록 학습과정이 다양화하여 학생들이 직업 또는 학업에 최적화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도 있음
 - 특수학교, 학업성적 우수학교, 원격교육학교(온라인)도 운영하고 있음, 원격교육의 경우 격오지에서 거주하는 가정의 경우 통학이 어렵기 때문에 실험실습을 제외한 학업 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함, 직접 등교수업의 경우 필요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과정을 구성하고 있음
 - 상급학년에서는 일부 특정자격증(시각디자인)을 취득하여 취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무 실습과정과 유사한 내용의 과제를 이행하여 직무적성에서 사전에 자신의 적합도를 판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 향후 개발 되는 기술에 적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한가지 기술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토대로 성장하는 과정을 구성하는 것이 요구되며, 비판적 사고력, 혁신성을 가미할 수 있는 학생 개별화 과제가 주어지고 있음

○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데 어떤 정책을 추구하는지?

- 다문화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각국의 음식 문화, 의복 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학교내 특정한 문화체험의 날을 기획하는 등 학교에서 기획 운영하는 계기교육을 비롯하여 학부모의 문화적인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학부모 언어로 상담을 지원하는 교육청 정책을 운영하고 있음

○ 최근 세계적인 트렌드인 융합, 스마트, AI교육 등과 관련된 정책은?

- 최근 융합교육, 스마트기기 기반 학습 등을 활용하는 사례도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8월에 전세계적인 에듀테크 박람회가 시드니에서 열림

- 호주는 숙박, 요식업 분야 직업 선택과목의 선호도가 높아 직업훈련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과목으로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음

- 또한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자격시험에 직업훈련 내용을 자신의 실적으로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직업교육에서도 활발한 참여가 이뤄지고 있음

- 대학의 경우 입학과정에서는 수월하게 보일 수 있으나 일부 학과의

경우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학업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진학과정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적지 않음

- 한국과의 우호적인 교류를 희망하며 세종시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으면 함
- 코로나 이후 최근 1년 단기 고등학교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음, 한국 및 세종시에서도 국공립학교와 교류가 필요한 경우는 주교육청에서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음
- 교육청은 교육기부, 기금모집, 자원봉사활동 등 교육관련 제반사항을 총괄하고, 각 대사관 연계프로그램도 교육청과 연계하여 운영중이므로 좋은 정책으로 학생 및 교직원이 교류할 수 있었으면 함

□ 시사점

- 호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사립학교에 등록하는 학생수가 25% 증가한 것으로, 2022년도 등록 학생수는 0.3% 증가했으나 사립학교 학생수는 2021년과 비교하여 3.3% 증가함
- 최근 호주 내에서는 공립학교 교사 부족 현상이 있으며 퀸즐랜드주의 경우 격오지 초임 공립교사 실수령액을 인상하는 등 교원처우개선에 대한 의견이 있음
- 교원의 신분보장이 이뤄지는 한국과 비교하여 직업 이동이 자유로운 환경으로 NSW 주의회에서는 2월 24일 교사 부족 및 교육결과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현대적이고 역동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나 역량있는 교원들이 지속적, 안정적으로 교수학

습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체계가 안정화 되어야 함

- 헌신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교사들이 교직에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인지 검토 필요
- 2023년도 자폐증 아동 지원을 위한 자폐증 포용 교사(Autism Inclusion Teachers)를 배치하고 자폐증 학생 관리 자격을 갖춘 직원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음
- 교육의 평등성은 가장 학업환경 및 조건이 어려운 학생이 불편함 없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중요함
- 1교실 1교사에서 벗어나 다양한 지원과 인력을 구성하여 다면적으로 학생들이 상호교감하며 활동할 수 있는 언어치료, 작업치료(놀이치료) 등도 공교육내에서 도입 검토가 필요함
- 호주의 국가 장애 보험 제도(NDIS)의 경우 교육부분에서도 강력하게 사회 안전망을 구성하는데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본 제도를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에 적합한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시드니 한국교육원, 한국문화원

□ 방문 개요

○ (일시/장소)

- 4. 5.(수) 13:00 ~ 14:00 / 한국교육원

- 4. 5.(수) 14:00 ~ 15:00 / 한국문화원

○ (참 석 자) 11명 / 기관담당자 外 2명, 통역 1명, 의회 8명

○ (방문목적)

- (한국교육원) 한국 자매결연 교육 현황 및 국제교류 증진 방안

- (한국문화원) 한국 문화 지원교육 및 문화 교류 증진 방안

□ 기관 현황

[호주 시드니한국교육원]

○ 1989년 8월 교육부에서 주시드니한국총영사관 부속기관으로 설치

○ 호주 연방 교육부, 시드니 주 교육부와 교육 교류 및 한국어 진흥 협상 담당

○ 60여개의 정규학교와 9,000여명의 학생들이 한국어 학습 및 시드니 총영사관 관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한글학교와 호주한글학교 협의회를 지원하고 있음

[호주 시드니한국문화원]



- 한국, 호주 수교 50주년을 기념하여 호주 시드니에 개관
- 한국문화의 멋을 현지인들에게 소개하는 한편, 문화를 매개로 호주와 한국이 친숙할 수 있는 계기 활동을 제공하고 있음
- 연간 특정 행사, 전시위주 프로그램을 운영
 - 한국어 교실, 한국음식, K-POP댄스 등 다양한 한국문화 강좌를 제공하고 있으며,
 - 문화원 입구에는 한국 알리기를 위하여 K-POP영상이 흘러나오는 멀티스크린이 있고, 매년 호주에서 열리는 한국영화페스티벌과 한국을 알리는 홍보물이 설치되어 있음

□ 시사점

[호주 시드니한국교육원, 원장 진영]



- (교육원) 기관 규모에 비해 운영 프로그램이 많음, 운영상 어려운 점은 없는지
- 재외동포 어린이 프로그램, 한국유학지원, 한글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근직원 2명이나 교육활동 지원인력으로 각 프로그램 및 행사를 담당하고 있음
- 과거 학생으로 참여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봉사 및 교육지원을 하고 있어서 자부심을 느낌



[호주 시드니한국문화원, 부원장 김소영]

- (문화원) 호주 내 한국인은 물론 중국 및 동남아계 호주 이민족을 위주로 한류문화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호주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홍보하고, 호주 내 한류가 성장하는 데 한국 문화원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시드니에만 10만 명이 넘는 한국 이민자들이 살고 있어, 한국인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호주이민 2세 한국인은 물론 호주인들이 한국문화를 바로 알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음



- 인접한 두기관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각 시도에서 교류 협력을 위한 지원을 활발히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분에서는 주교육청에서 교류협력을 주관하고 있어서 학교, 교육원, 주교육청 3자가 협약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단위학교에서 교류 협력을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교육청에서 국제교육협력관련 정책으로 활발한 우호활동이 이뤄지길 제안함

○ 세종의 다양한 문화홍보 활동이 문화원에서 전시, 체험프로그램으로 런칭하여 운영할 수 있는 협업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바, 향후 세종의 능력있는 문화예술인들이 국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로 삼을수 있는 향후 정책을 구안할 필요가 있음



아서필립고등학교



□ 방문 개요

- (일시/장소) 4. 5.(수) 15:00 ~ 16:00 / 아서필립고등학교 본관
- (참 석 자) 11명 / 학교담당자 外 2명, 통역 1명, 의회 8명
- (방문목적) 초중고 통합학교 운영방안, 학교내 메이커스페이스 구성 및 진로활동 프로그램 등을 벤치마킹하여 세종시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시책 발굴

□ 학교 일반 현황

- 아서필립하이스쿨은 1875년도에 개교한 NSW주 파라마타 지역 도시 학교로 90%이상 학생들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국제학교로 운영중임



<실내 공용 공간>

- 2019년 파라마타 지역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해 2억 2500만 달러(한화 약 2,952억 5,000만 원)을 들여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였음



<조리 등 실습실>

- 17층 고층건물내 초,중,고 학급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약 1200명의 학생들이 재학중임
- 별도의 기숙사는 운영하지 않고 제2외국어로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학비는 주정부 홈페이지에 자료를 공개하고 있음

□ 시사점

- 디지털 제작 장비의 보편화와 학교내 제작공간의 대중화 필요
 - 디지털 제작 장비로는 3D프린터, 레이저 커터, CNC 라우터 등이 있습니다. 디지털 제작 장비들은 컴퓨터를 이용해 작동하고 인터넷에 공유된 오픈소스를 사용하여 작업 할 수 있음
 - 개인 PC의 보편화와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의 등장, 장비의 소형화, 합리적인 가격 등의 요인도 디지털 제작 도구의 보편화에 영향
- 직업교육의 일환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언가 만들어보겠다는 능동적인 행동으로 인식하고
 - 학생들이 자발적인 참여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간이 필요함



<복도 내 학생 이용 공간>



<메이커 스페이스>



시민참여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스토리팩토리, 어린이 안전]



☐ 방문 개요

- (일시/장소) 4. 5.(수) 16:00 ~ 17:00 / 파라마타 공립학교, 스토리팩토리
- (참 석 자) 10명 / 시설담당자 1명, 통역 1명, 의회 8명
- (견학목적) 어린이 등학교 안전 정책(스쿨존 등) 검토 및 학교 밖 교육시설 운영 방안

☐ 일반현황

[어린이 안전]

○ 학교 통학차량 운영

- 스쿨버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란색 버스가 아니며 일반 시내 버스와 동일하고 전면부에 'SCHOOL'이라고만 쓰여 있음
- 호주는 학교별로 스쿨버스를 두는 것은 낭비라고 하여, 등하교 시간에만 시내버스를 스쿨버스로 활용함
- 학교별로 스쿨버스를 운행할 경우 각각 따로 차량을 구입해야 하고, 등하교 시간 외에는 차고에 세워놓아야 하고, 운전기사도 별도로 채용해야 하는 등 비용이 수반되는데, 시내버스를 스쿨버스로 활용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효율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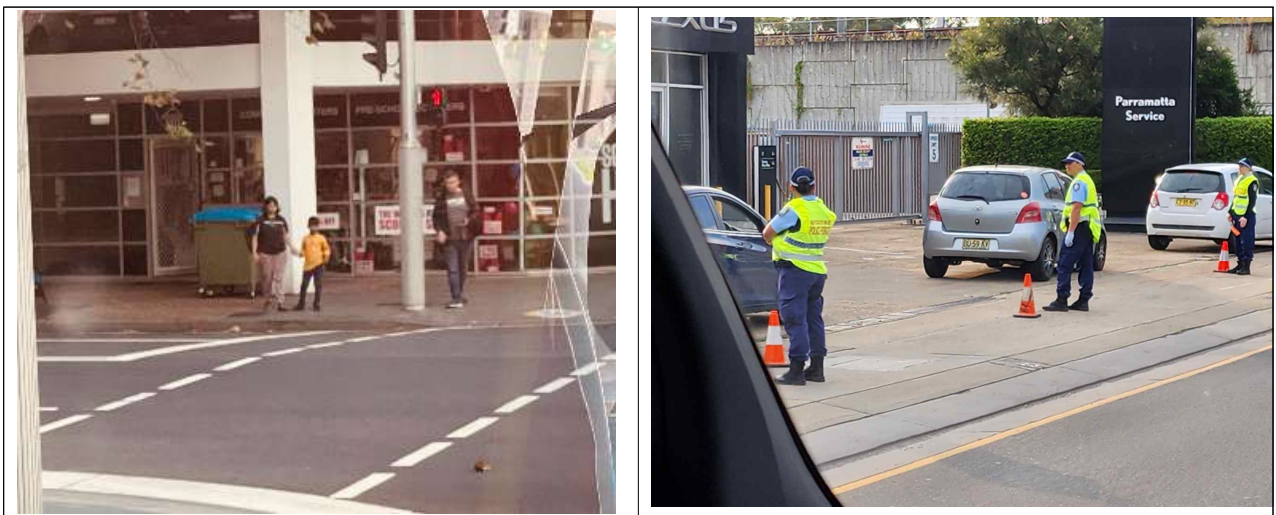
○ 학생 등하교



<파라마타 공립 초등학교>

- 초등 5학년까지는 법적으로 등학교는 보호자1명이 동행해야 함, 보호자가 부재할 경우 학교에 대리자 1명을 지정 등록




















- 등학교시 교통사고의 대다수는 보호자 미 동반하에 이뤄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학생 등학교 책임은 보호자에게 의무가 있음을 강조
- 스쿨존 지역 교통 벌금은 약 300\$ 이상, 벌점 부과도 상당(최대 359 만원)하며 휴일 및 공휴일은 벌금 및 벌점이 두배로 부과
- 스쿨존 적용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운영, 등학교 시간이 일정하여 구분 운영이 가능



<하교 학부모 동반 및 스쿨존 인근 교통 단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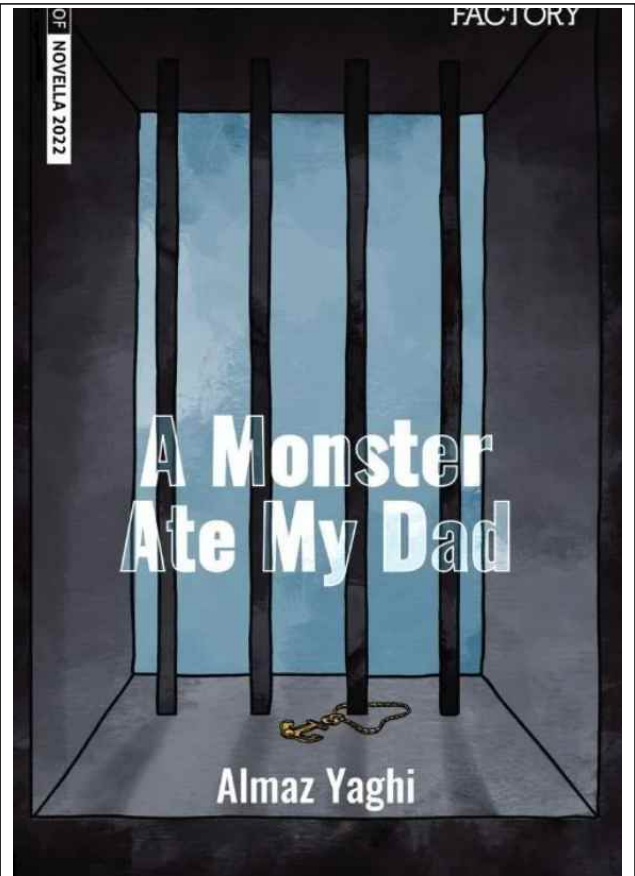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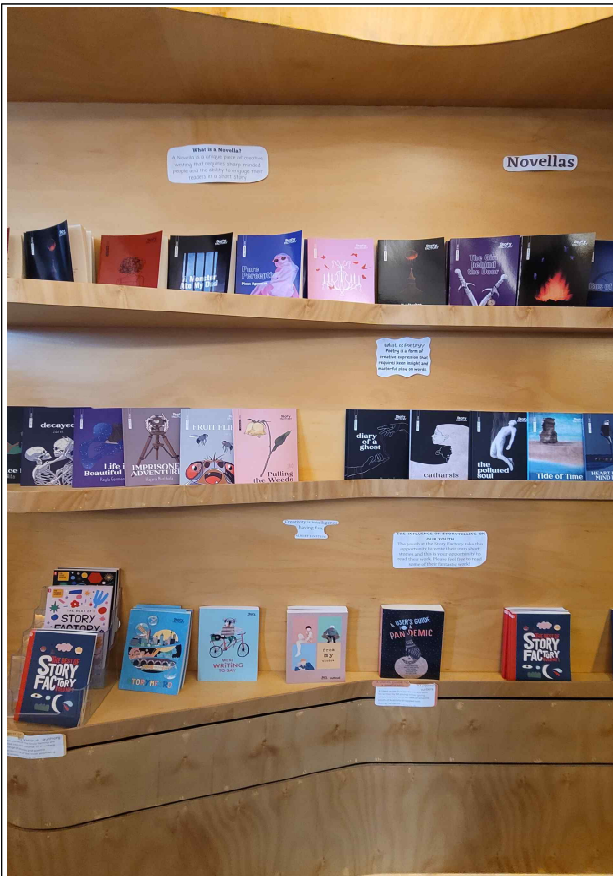
Parking and traffic rules in school zones

You need to take extra care when driving and parking in school zones. Make sure that you and your child understand the road rules. If you break the traffic rules in a school zone you are putting not only your child but other children at risk. The parking and traffic rules around our schools are there to protect your children. If you break the rules you will be fined. **Please choose safety over convenience.**

| QUICK REFERENCE GUIDE TO IMPORTANT SAFETY TRAFFIC RULES | | | | |
|---|--|---|--|--|
| ZONE | WHAT DOES IT MEAN? | WHY IS IT THERE? | PENALTY | DEMERIT POINTS* |
|  | You cannot stop in a NO STOPPING zone for any reason (including queuing or waiting for a space).  | Keeps clear sight lines between drivers and children / pedestrians. | EXCEEDS \$344  | (School Zone) 2  |
|  | You can stop in a NO PARKING zone for a max. of two minutes to drop off and pick up passengers. If no spaces are available you cannot queue on the road way or in any other zones while waiting for a space. You will need to drive away and park elsewhere, only returning when there is space to pull up. You must stay within 3 metres of your vehicle at all times and cannot leave your vehicle unattended. | Provides a safe place for children / pedestrian set down and pick up. | EXCEEDS \$191  | (School Zone) 2  |
|  | You must not stop or park in a BUS ZONE for any reason (including queuing or waiting for a space) unless you are driving a bus. If times are shown on the sign, you are not allowed to stop during those times. | Provides a safe place for large buses to set down and pick up school children. | EXCEEDS \$344  | (School Zone) 2  |
|  | You must not stop on or within 20 metres before a PEDESTRIAN CROSSING or 10 metres after a crossing unless there is a control sign permitting parking. | So drivers can clearly see pedestrians on the crossing. | EXCEEDS \$457  | (School Zone) 2  |
|  | DOUBLE PARKING You must not stop on the road adjacent to another vehicle at any time even to drop off or pick up passengers. | Double parking blocks visibility and forces other cars to go around you. | EXCEEDS \$344  | (School Zone) 2  |
|  | You must not stop on any FOOTPATH or NATURE STRIP , or even a DRIVEWAY crossing a footpath or nature strip for any reason. | You could easily run over a child or force pedestrians onto the road to get around you. | EXCEEDS \$344  | (School Zone) 2  |

Please note: The above information is current as of 1 July 2019. Penalties set by NSW State Government and reviewed on 1 July each year.

[스토리팩토리]



<스토리 팩토리에서 제작한 서적 등>

- 2012년 설립, 라바의 크리스 보스, 글루 소사이어티에서 디자인한 1,130평방피트(약 31평)의 규모로 운영
- 스토리 팩토리는 청소년을 위해 일반적인 시설 이용규칙이 없는 자유로운 공간으로 조성
- 이야기 창작소라는 명칭에 맞게 평범한 일상에서 다양하고 자유로운 상상을 이끌 수 있도록 하였음
 - 공간은 1830년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가정집을 수선하여 꾸밈
- 공간구성후 글루 소사이어티(브랜드 기획 전문 업체)에서 교육기부 차원에서 다양한 창작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구성

- 내부적으로 4개의 영역을 설정하고 외부에서 관람하기 어려운 공간은 건축가 크리스 보스에서 디자인한 우주여행을 하는 듯한 경험을 주기 위해 설계를 하여 공간을 차별화 함



<어린이 창작 이용 시설 내부>

□ 시사점

- 어린이 보호구역은 최근 국내에서도 제한을 강화하고 있음, 강풍이 심한 도시 특성상 표지판의 시안성이 좋지 않음
 - 강력한 스쿨존 등 교통법칙금 체계로 인해 스쿨존 내 사망자는 0명에 가까운 것은 아동보호와 관련한 정책 검토에 인색 개선이 요구됨
- (스토리 팩토리) 오래된 건물을 이용하면서 건축규제 및 문화유산 보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내부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경우

임대 기간이 끝나면 제거가 가능하도록 구성

- 모든 공간에 곡선을 반영하고 참여하는 학생들이 공간에 애착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음
- 위탁가정 학생들 등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다양한 창작경험을 제공해 주고 있어서 학생들이 부담없이 지속 방문할 수 있는 모델로 손색이 없음
- 교육기부 및 지도자 워크숍을 상시 운영하고 있어 교육기부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다만 교육기부에 관한 세제 지원 및 예산 지원등은 미비하여 향후 정책 설계 및 검토시에 세심히 살필 필요가 있음

소방박물관



☐ 방문 개요

- (일시/장소) 4. 6.(목) 09:00 ~ 12:00 / 소방박물관
- (참석자) 9명 / 통역 1명, 의회 8명
- (방문목적) 학생 소방 박물관 체험 시설 견학 및 프로그램 운영 사례 수집

☐ 기관 일반 현황

- 비영리 등록 자선 단체인 FRNSW(Fire and Rescue New South Wales) 공식 파트너로 운영

- 화재관련 유산 보존, 화재 안전교육 운영 기관
 - 구 소방서 건물을 이용하여 역사와 전통을 보전하려 노력함
- 호주 이민 초기 소방 체계 및 관련 역사, 화재의 종류, 화재 진화 도구의 발전, 구 사용 장비의 전시, 역사 기록물 정비 등을 담당
- 학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화재 예방교육을 일부분을 담당

□ 주요 견학 내용

- 소방박물관은 18세기부터 지금까지 관련 기록과 장비를 전시하고 있음
 - 2001년 6월 30일 개관하여 약 20여년 운영 중이며, NSW소방협회에서 호주소방시스템의 발전을 기록 전시하기 위해 설립함
 - 18세기 최초 소방마차, 초기 화재진압도구, 개인소방장비(소방복, 헬멧 등) 물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호주 소방 시스템의 역사, 문화유산을 누적 관리하고 있음
- 전시실 구성, 전시 체험 물건의 관리 및 운영



- 200여년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다수의 인원이 견학, 체험을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건물 안팎에 체험장소를 구분하여 운영
- 전시 체험물 중 지역 행사에 선보일 정도로 관심도가 높음

○ 학생 안전교육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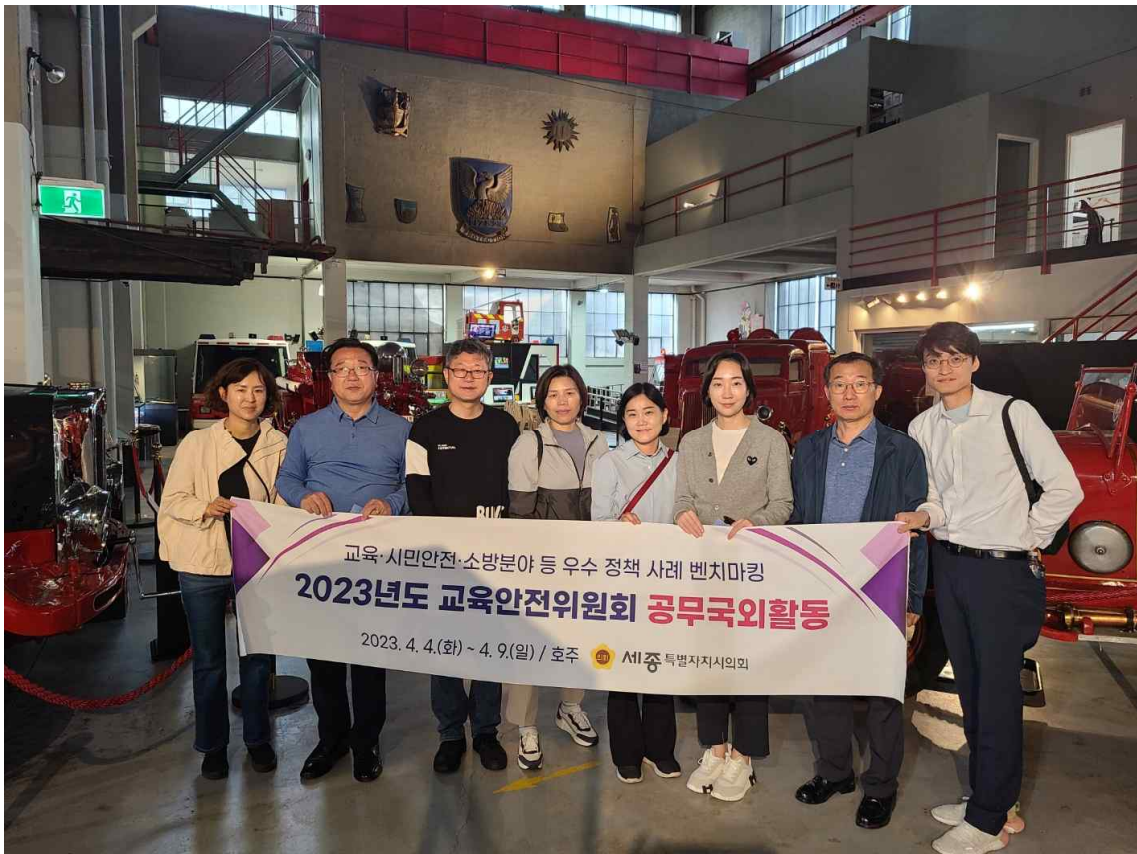
- 소방박물관에서는 전시, 체험, 견학을 운영하고 각 지역소방서에서 학교내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가정에서도 화재 안전관련하여 부모의 인식이 높아 안전사고율이 낮은 편임

□ 시사점

- 한국은 화재 부분을 안전교육 부분의 일환으로 교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박물관은 특화된 주제중심 교육을 진행하는데 강점이 있음
- 세종 박물관 단지 내에 소방 박물관 및 특화 전시관을 구성하는 것을 제안함
- 순직 소방관을 기념하는 장소를 별도 관리하고 있어서 사회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담당자들의 명예와 사회적인 격려가 필요함
- 박물관의 크기는 대규모가 아니나, 박물관내 밀도 있는 전시물의 구성, 짜임새 있는 설명 기록 등은 아동부터 성인까지 견학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음
- 박물관 관장은 은퇴한 소방공무원이 담당하며 학생 체험시 현장 설명을 지원하고 있음

-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체험 및 견학시설의 경우 무료로 한국은 운영하나 방문지의 경우 소정의 입장료를 이용하여 견학 및 참여자들이 기부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있음
- 공익활동을 위한 시설 견학 및 참여자가 적정한 소정의 기부 문화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요함

☐ 연수 사진



블루마운틴 호텔학교

□ 방문 개요

- (일시/장소) 4. 6.(목) 13:00 ~ 14:00 / 직업학교 내 도서관
- (참 석 자) 11명 / 입학담당자 外 2명, 통역 1명, 의회 8명
- (방문목적) 직업전문학교 학사일정 및 산업체 연계 방안 등을 벤치마킹하여 세종시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시책 발굴

□ 호텔학교 일반 현황

- 1991년에 설립된 이후로 3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블루마운틴 호텔학교는 호주 최초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호텔경영학 프로그램을 제공한 직업학교임
- 현재는 호주의 사립대학인 Torrens University Australia (TUA)의 단과대학 중 하나로 편입되어 호텔경영학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를 제공하고 있음
- 블루마운틴 호텔학교와 붙어있는 3성급 호텔인 “Nesuto Leura Gardens Hotel”은 실제로 투숙객을 수용하는 호텔이자 블루마운틴 호텔학교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캠퍼스 부지에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및 카페가 있어 학생들에게 실제 호텔과 같은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주요 질의 및 응답

Q1 : 학교가 국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음, 도심에서 90Km 떨어져 있으며, 한인타운은 2시간 1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학생들이 학업 외 외출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함

① 호텔경영학 학사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A : 학업기간은 2년 6개월(5개과정)제로, 전체 수업료는 약 93,000 (약 8천만원)호주달러임, 1년은 4개 학기로 구분되고 이론과 유급 인턴쉽을 겸하고 있어서 학비에 대한 부담이 적은 편임, 유급 인턴쉽의 경우 연간 600시간 까지 가능함

② 호텔경영학 석사과정은 어떠한가?

A : 호텔경영학 석사과정은 2개 캠퍼스에서 진행됨, 수업료는 48,000호주달러로 시드니와 애들레이드 멜번 지역 캠퍼스에서 수업을 진행함, 첫 1년은 이론수업, 나머지 1년은 유급 인턴쉽 6개월과 이론수업 6개월로 구성됨

③ 세종시교육청에서는 호주 브리즈번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이 직업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단기 체험 교류가 가능한지?

A : 단기 교환 프로그램은 없으나 주교육청과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서 연계가능한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함

Q2 : 학교 기숙사 수용인원과 수료후 학생 취업활동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 180개실 360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267명이 현재 이용중임, 유급인턴쉽 활동 중에는 산학연계되어 있는 호텔에 취업하고 있음. 매리어트, 스타우드 등 취업박람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GPP EXPO)있음

Q3 : 원하는 학생이 모두 입학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함. 입학 최저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A : 학사, 석사과정은 1년에 4번의 입학시기가 있음(1, 4, 7, 9월). 학사 과정은 호주 고교 12학년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요구하며 첫 학기가 끝나는 날까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석사과정은 호주의 학사 학위와 동등한 학력을 요구하며 전공은 무관함.

Q4 : 어학 요구 조건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A : 학사, 석사 과정 모두 IELTS Academic 6.0(each 5.5)이상을 요구함. 영어점수가 없거나 부족한 학생은 어학연수를 통한 조건부 입학도 가능하여 입학처에 자세한 사항은 문의해 주시기바람



□ 시사점

-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수업과정은 고등교육에서 이론을 전문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습주제 및 관련 전공에서 실습을 통해 이론을 접목하는 학사 운영 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세부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단순 모의 연습이 아닌 실제 호텔 운영사항을 접목하여 대단위 식사 준비 및 행사 운영, 계산 처리 등을 병행하고 있어서 직업교육의 전문기관으로의 자부심을 운영 담당자들은 가지고 있음
- 중도탈락학생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공개받지 못했으나 학업 난이도는 상당하여 뚜렷한 목표의식 없이 참여할 경우 수업자체가 기속

사를 이용할 정도로 촘촘히 구성되어 있어서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과정임

-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직업적성능력 및 사전 체험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고민할 시간이 필요함
- 2015 교육과정에서 NCS(직업이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하기 위한 교육)가 적용되었지만, 교사 양성, 교수학습 평가방식, 시설설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세종시교육청 관내 장영실고, 미래고(전 하이텍고), 세종여고 내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운영학과 및 방식, 학생 입학 및 취업현황을 살폈을 경우 학생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전문적인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우수학습자에 대한 어학 지원, 유학 상담 지원 등 국내외를 아우를 수 있는 진로진학 지원을 위해 최근 개관한 진로정보원에 정책연구 수행 등 세부내용을 준비하여 중장기 정책연구에 도입할 수 있도록 제언하겠음
- 직업계고 학생들에 대한 정책 지원을 위해서는 현장실습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담기관 설립이 요구된다.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기능이 목적이라 할 수 있으며, 현장실습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문제를 학교 담임교사나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현장실습을 지원 관리하는 시스템이 무엇보다 필요함

- 한국 직업교육의 역사를 살펴보면, 직업교육 효시는 1899년 상공학교의 설립부터. 12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학교 명칭은 실업계고등학교, 전문계고등학교를 거쳐 현재는 특성화고등학교로 변경하였음
- 1958년 제1차 교육과정부터 고등학교 수준에서 농업·공업·상업·수산·가정(가사·실업) 분야의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산업구조와 함께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음
-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미흡,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일자리 수급 불균형,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직업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교육과정의 경직성 등 직업교육의 문제점은 풀어야 할 숙제라 생각함
- 방문지의 경우 시간당 3만5천원 정도의 최저시급을 보장하는 상황과 사회복지제도의 뒷받침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으며, 직업교육에 대한 전문지원은 직업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책이라 사료됨



저비스베이 산불진화소방단

□ 방문 개요

- (일시/장소) 4. 7.(금) 13:30 ~ 14:30 / 지역 소방서 본관
- (참석자) 10명 / 기관 담당자 1명, 통역 1명, 의회 8명
- (방문목적) NSW주 소방청 지역 소속, 국립공원 지역 산불화재 진압 및 예방, 차량 사고 및 화재, 구조 화재 및 기타 운영 사고 전반 운영 체계 견학

□ 기관 일반 현황

- NSW주는 142개 지역을 세분하여 각 지역은 정규 소방관이 담당하는 기관을 운영하고, 2400여개의 자원봉사 단체에서 대원을 별도로 편성 운영함
 - 2019, 2020년 호주내 대형산불 발생과 같이 빈번히 발생하는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였음
 - 산불화재 발생시 민가 및 문화재 보호를 우선하고 자연림 화재 진압은 항공 등을 이용한 주불이 민가로 확산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조치함
 - 산불 발생 지역 및 기상여건을 살펴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노약자 대피 방법등을 사전에 비상대피 여건을 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주요 견학 내용

- 산불진화는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단순 자원봉사 인력을 확충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원, 시청 지원 부서 등 600여 명이 자원봉사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등을 담당하고 있음
- 주소방관은 산불 재난 상황 발생시 자원봉사대원들의 준비와 배치 및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관리자의 책무가 있음
- 여성 자원봉사 대원의 참여율도 고무적으로 대략 30%이상의 성인 여성들도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에 이바지 하고 있음

□ 시사점

- 자원봉사단의 경우 별도의 수당없이 순수 봉사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참여를 중시하는 문화로 사료됨
- 국립공원내 지역소방서의 경우 24시간 운영체계가 아닌 화재발생시 비상상황에서 도구 및 장비를 운용하는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함



-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내 민가의 경우 기본적인 스프링클러 등의 화재 방재 장비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주기적인 점검으로 시설관리가 내실있게 유지될 수 있음
-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책으로 소화 시설의 자동 분사 장치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자원봉사자의 경우 권한을 부여받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함

- 가) Volunteer들은 소방대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합법적 권한 가짐.
 나) 대원들은 직업소방대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훈련을 받는다.
 다) 보호장비, 복장, 호흡기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것을 사용한다.
 라) 대원들은 재산손실, 임금손실, 상해 및 사망에 대하여 보험이 되어 있다.
 마) 산불진화기간 동안에는 모든 대원들의 지출(음식과 편의) 그리고 대원들의 직업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 소방, 방재 담당 부서와 산림청과의 공조체계가 원활하며 4가지 사항에 대한 협업을 진행함
 - 기반시설 계획, 훈련활동, 지역사회 교육훈련 프로그램, 진화장비에 관한 사항 등
- 산불관리법(Rural Fire Act)에 근거, 관련 기관과의 공조를 『산불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제도 및 현황 추가 검토가 필요함



저비스베이 생태환경공원



□ 방문 개요

- (일시/장소) 4. 7.(금) 14:30 ~ 15:30 / 생태환경공원
- (견학목적)

□ 기관 일반 현황

- 저비스베이는 호주 준주로 관할 총리(시장급), 별도 행정관이 없음
 - 별도 행정사무국을 운영하고 공식 깃발 및 휘장이 없는 좁은 행정구역임
- 67.8제곱 킬로미터에 391명의 거주민이 있으며, 시드니와 캔버라 중간지역으로 선거구가 불연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 1992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해변 백사장, 내륙 숲 관리를 통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학생 생태체험학습장으로 이용을 유도하고 있음



□ 주요 견학 및 시사점

- 생태공원에서 서식하는 맹그로브 나무는 바다에서 자라는 수생환경 정화나무로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서식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 자연 그대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인위적인 구조물 및 설치시설을 지양하고 있으며, 다수의 관광객이 관람하기는 보행로가 좁음
 - 생태환경습지만 관람하는 것이 아닌 인근 박물관, 해안 모래사장 등과 연계한 1일 체험학습을 진행하는데 특화할 수 있는 환경임



시드니 소재 대학(서호주, 시드니 대학교)

□ 방문 개요

- (일시/장소) 4. 8(수) 09:00 ~ 11:00 / 대학 학생 상담처
- (참석자) 11명 / 학교담당자 외 2명, 통역 1명, 의회 8명
- (견학목적)

□ 기관 일반 현황 및 견학내용

[NSW대학교, 시드니 주립대학교]

- 1850년대 설립한 호주내 역사와 전통을 가진 시드니 주립대학은 호주국립대, 멜버른 대학교와 같이 호주 3대 대학으로 발돋움 함
- 국내 대학과 교류 협력활동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기계, 항공, 우주 연구 부분 대학원은 세계적인 유수의 학문적 성과를 이루고 있음
- 도시내 각 과별로 대학건물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내 학생 상담센터를 통해 학생들이 학업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Western Sydney University (WSU)]

- 시드니 외곽 지역들에 캠퍼스가 있으며 신설 캠퍼스를 오픈함
 - 학비가 비교적 저렴하다는 장점으로 유학생은 꽤나 유치되고 있으며 호주에서 유일하게 통번역 과정을 학사 단계에서 제공함

□ 시사점

- NSW대학의 경우 대학내 교통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을 주 이용하는 도시에서 자전거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병행 추진하고 있음
 - 자전거 활성화는 이용자의 개인 편차가 크며, 자전거 이용 경험이 상이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자전거 도로를 정비해야하는 부담이 있음, 또한 자전거 이용자의 대부분이 차량을 소유하기 때문에 수요예측에도 제한됨
- 각 대학에서 대학개방 행사일을 지정하여 예비 학생들이 학교 시설과 강의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전공의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학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한 질의 응답을 제공
 - 향후 세종 대학캠퍼스에서 운영모델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진로 탐색 및 결정에 자세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음

□ 연수 사진





패딩턴 도심재생시설



☐ 방문 개요

- (일시/장소) 4. 5.(수) 11:00 ~ 12:00 / 도심재생지
- (방문목적) 도시내 폐시설을 안전하고 사용이 용이한 휴식장소로 변경 추진한 사항 견학

☐ 일반 현황



- 패딩턴가든은 옛날 오지에 살던 원주민들이 물을 따라 이동하다 시드니에 처음으로 저수지를 만들어 정착하기 시작한 자리에 건설되어 1866년부터 지역 일대에 물을 공급하던 급수시설이었음
- 1899년 다른 곳에도 저수, 급수시설이 생겨나면서 폐쇄되어 100년 가까이 차량보관소 등으로 사용되다 1990년 지붕붕괴 사고가 일어나고 철거와 보존의 논란이 있었으나 2008년에 원형을 유지한 채로 공원으로 탈바꿈시켜 주민들의 쉼터, 문화공간, 예식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 지상보다 낮은 폭 파인 지형에 로마의 고대건축물 콜로세움을 연상시키는 벽돌로 쌓은 아치와 벽면, 철골사이에 나무와 잔디를 식재하고 경관과 어울리는 의자 몇 개만을 배치해 도심 속의 이색공간을 연출

- 2009년에는 급수시설을 아름다운 공원으로 탈바꿈한 것을 인정받아 도시디자인상도 수상함

□ 시사점

- 패딩턴가든은 시드니의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플랫폼이며 보존과 재생이 교차하는 장소로 사료됨
- 급수시설 구조물과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투박한 벽면과 아치 등에서 역사와 조상의 숨결을 배우고 그 속에 조화를 이루고 있는 녹색공간에서 건강한 도시의 미래를 조망할 수 있도록 조성한 것은 고무적임
- 패딩턴가든은 옛 구조물과 건물을 재생한다는 것은 단순한 옛것을 보존 하고 재활용하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상상력을 풍부하게 하며 공동체문화를 되살리는 것을
- 건물과 시설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함께,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실용적이고 창조적인 보존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지역행사참관



☐ 방문 개요

- (일시/장소) 4. 8.(토) 13:00 ~ 14:00 / 락스 마켓행사지
- (참석자) 8명 / 의회 8명
- (방문목적)

☐ 일반 현황

-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지역 행사
- 패딩턴, 글리브, 패디스와 같이 시드니 4대 마켓을 구성하고 있으며 문화공연 등도 편성하고 있음

□ 주요 견학 내용

- 지역의 자연환경인 사암지역을 활용한 바위표면을 거칠게 나타내는 건축물을 통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문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함
- 마켓 중심부에 퍼스트 임프레션 기념 동상을 토대로 자국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려고 노력함
 - 영국에서 이주한 군인, 죄수 등 초기 개척자들의 모습을 상징
- 200여개의 상점이 마켓을 구성하고 있으며 별도의 라이선스를 받고 운영하고 있음. DIY상품이 주를 이루며 푸드트럭 및 카페가 어우러져 있어서 마켓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함



- 인근 잔디밭에서 문화공연을 병행하고 방문당일 부활절 행사와 연계한 어린이 참여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었음



□ 시사점

- 1788년 호주 시드니에 영국의 총독이 첫발을 디딘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지역으로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적인 공간을 어우러지게 조성하였음
- 도시 자체적으로 오래된 고 건축물의 경우 외부 경관의 리모델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보존하기 위한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예산 및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한정된 기간 및 시간에만 운영하는 희소성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험성으로 인구유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역 행사 운영 모델로 세종시 행사 등에 접목할 가능성이 있음
- 보행로 구분 및 운영 상점간 이격 등 안전 수칙을 내부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차량 주차 제한 및 교통량 조정으로 도보이용객들이 큰 불편없이 행사를 참여하는 것이 고무적임

주립미술관

☐ 방문 개요

- (일시/장소) 4. 8.(토) 14:00 ~ 15:30 / 주립미술관(본관, 별관)
- (참석자) 8명 / 의회 8명
- (방문목적)

☐ 기관 일반 현황

- 호주에서 4대 대형 미술관으로 특별전시를 제외한 무료 관람이 가능
- 본관 및 신관 지상 2층 지하 4층 규모로 구성
 - 본관: 아시아관, 시각디자인, 현대미술 관으로 편성
 - 신관: 신진작가, 지역 원주민 작품 위주 전시
- 별도 원주민 토속 미술 전시 지역을 설정하고 해설프로그램을 동반
- 성인 및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영유아를 위한 별도 공간 및 미술관련 학술자료를 보관 열람지원하고 있음

☐ 시사점

- 미술관 소장품 중 루벤스 등 유명 화가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음, 개인 세금 납부시 미술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명화 및 설치 미술 작품들이 지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세종 관내 미술관이 운영될 경우 소장품 보유를 위해 미술품으로 대

납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예술활동 작가들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작품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미술관에서는 행정관청과 연계하여 활동을 독려하고 있음
- 미술관 주차시설이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관람을 권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다수의 인원의 편의를 위해서는 주차관련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미술품의 관람은 대중에게 무료로 공개하는 정책은 사회 여가에서 차별을 이루지 않는 정책 철학이 내재된 것으로 사료됨

☐ 연수 사진



시드니 주 소방서

□ 방문 개요

- (일시/장소) 4. 8.(토) 15:30 ~ 16:30 / 주립미술관(본관, 별관)
- (참 석 자) 10명 / 기관 담당자 1명, 통역1명, 의회 8명
- (방문목적)

□ 기관 일반 현황

- 1910년 창설, 도시 화재, 구조, 유해물 제거 등을 담당하는 주 정부 기관
- 2020년 이후 신설건물로 최근 이전하여 시드니 중심부 안전구호 활동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주 전역 337개 소방서 네트워크 및 667대 가량의 소방차량, 182명 공인 전담 담당자를 운영하는 조직체계를 이루고 있음
- 주 소방관 등록인원은 6,800여명으로 지역 소방(자원봉사 7,000여명 구성) 인력과 455명의 행정관리 담당 인력을 운용중임

□ 시사점

- 호주에서 화재 주요원인은 가뭄으로 인한 자연발화로 주 원인을 지정하고 있음, 이는 예년과는 다르게 기후자체가 변화하는 현상으로 상시 대규모 화재 상황을 대비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NSW 소방및 응급구조서비스(Fire and Rescue NSW, FRNSW)'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시스템(flexible rostering system)' 도입 후, 소방관 지원율이 높아짐
 - 24 시간 일하고 교대하는 시범적 근무시스템은 2014년 시드니 라이드시 소방서에서 최초로 도입됐다. 이전에 소방대원들은 의무적으로 주당 낮 10시간, 밤 14시간을 채우는 교대 근무를 해왔음
 - 소방업무는 신체적으로 힘들고 화재라는 응급상황에 직면해서 수행하는 직무임을 사회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필요함
- NSW주가 새롭게 정비한 화재 경보는 위험 정도에 따라 '위험(severe)', '고위험(extreme)', '최고위험(catastrophic)'의 순으로 나뉘며 정보 수준을 알 수 있다면 피해 주민들은 집에 계속 머물러도 될지, (더 큰 화를 면하기 위해) 집을 버리고 떠날지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조기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공공기관 및 비영리 기관, 자원봉사단체의 협업을 통한 방재 체계 구성은 도시 안전을 위해 운영 관리 방안을 살펴 내실화 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이 필요함
 - 호주 소방유관기관과 기술협력 및 인력교류 활성화로 국내 소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 하고,
 - 해외 소방용품관련 기술동향 및 신제품에 대한 정보 수집으로 국내 소방산업 기술경쟁력 강화가 필요함

□ 연수 사진



Ⅳ. 연수 후기

정중동(靜中動), 지나침도 부족함도 없는 사회

교육안전부위원장

김 현 옥

호주는 우리 시와 연이 닿아 있습니다. 세종시교육청 직업계 고등학생 국제 현장 실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소방본부에서도 전문 소방훈련시설을 위한 위탁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직접 체험하고 살피며 충실히 연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세심히 기울여야 했습니다.

오페라 하우스, 캥거루와 코알라의 나라, 인구밀도가 낮고 축산업, 철광석을 채굴하는 나라. 초등학교 사회책에서 다루는 호주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4일이여의 짧은 기간동안 담을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어도 그 이면에 있는 사회, 문화를 살펴 우리 시에 적합한 내용을 찾고자 일정 및 내용을 챙겼습니다.

타국에서는 접하는 일상은 출국시에 2019년 대규모 재난(산불)과 코로나 팬데믹을 연이어 겪으면서 사회전체가 침체되고 삶이 어려운 상황을 기억하였습니다. 원할한 연수를 추진함에 사뭇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한국과 계절이 반대인 상황에서 막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국의 공기는 건물에 손 소독제가 코로나 상황을 잘 지나간 것처럼 일상으로 회복을 재촉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핸들만 좌우가 다른 교통문화만 있는 것이 아닌, 북반구에서 느끼지 못하는 남반구에 위치한 호주는 삶의 방식, 체감하는 시간의 흐름, 사물을 살피는 관점 자체가 우리와 사뭇 다른 것을 느끼는 첫 시작이었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의 첫 번째 국외 연수는 우리 시의 교육상황과 다른 영국식 학제를 운영하는 시드니 교육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NSW주도인 시드니로서의 도시 교육을 총괄하는 기관에서 세심히 준비한 자료를 살피면서 전문 통역사의 막힘없는 내용전달로 큰 위화감 없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숨돌릴 틈도 없이 진행되는 교육원 및 문화원과 학교방문, 스쿨존 운영실태, 마을속 시민 참여시설들을 살피고 있노라면 한결음 더 나갈 수 있는 체력이 아쉬운 일분일초가 소중한 경험을 느끼고 틈틈이 소감을 기록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역행사 및 국가적인 행사를 엿볼 수 있는 연수 기간 중에는 행사는 지역 시민의 참여와 경험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음을 느낍니다. 단순히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기반으로 소통하고, 서로가 서로의 안부를 챙기면서 사회의 연대는 인사에서 시작하고 배려함으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어린 참가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세심한 준비와 행사내내 청결히 유지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노력, 아직 영어에 익숙치 못한 참가자 들은 서로가 서로를 챙기며 불편함을 이겨내는 과정은 시드니라는 도시가 가진 성장 가능성으로서 선진 도시의 한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그리고 세종시도 세계적인 도시로 변모하고 선도하는 시기입니다. 조금은 답답하고 불편한 점은 그동안 국내에서는 모른채 당연히 하던 것들의 이질감임을 국외에서 느낍니다. 활력이 넘치는 젊은 도시 세종에서 지난 10년의 시간을 토대로 다음 10년을 바라보는 가운데 한쪽으로는 국외 장점을 살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진 장점을 내세워 봅니다.

참여하신 모든분들 안전하고 건강히 일정을 마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내실있고 새로운 시각에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향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뢰는 정책의 기본입니다.

교육안전위원

김 학 서

베이비붐, 고도경제발전시기, 학력고사, 경쟁교육, 지난 삶을 반추하며 자녀도 성년이 되고 어느덧 손자의 성장을 응원하는 시기에 오롯이 삶에 새겨온 경험과 지혜를 떠올리며 이번 연수에 대한 소회를 기록합니다.

교육의 경쟁력은 신속하고 즉시반응의 현상이 아닌 지연적이고 구성하는 과정입니다. 멋진 결과물을 만들거나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누구나 기뻐할 것입니다만, 입상하는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 우리 교육에는 필수 조건은 아닐 것입니다.

호주 시드니 교육현장을 둘러보며 결과 보다는 경험 자체를 즐기는 경우가 많으며 그냥 무엇인가 만드는 자체가 즐거운 것으로 여유를 가지는 것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멋있는 결과물을 위해서, 실용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서 만들기를 하는 것은 아닌, 개인에게 주어진 여가 시간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즐거운 놀이이고 취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밖에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드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소비는 돈으로 손쉽게 물건을 얻을 수 있게 하지만 가치를 얻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돈을 주고 음식을 살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정성 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경험을 떠올려봅니다.

무엇을 만들면서 들어간 시간과 노력은 과정안에서 신체적 정신적 즐거움의 가치를 가져옵니다. 이 즐거움을 느껴 봤다면 왜 만들기를 좋아하는지 공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직업교육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적극적이며 호기심이 풍부하고 사소한 것에도 감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궁금한 것이 생기거나 무엇을 만들어 보고 싶을 때 적어도 세종의 학생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대안을 탐색하며 해결 방법을 찾는 자발적인 학습자이며 도전을 망설이지 않고 방법을 아는 것보다 실제로 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학습태도를 가지길 바랍니다.

인공지능기반 시대에는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지 않는 이유는 처음부터 잘 할 필요도 없고, 실패해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는 실패해도 그 안에서 무엇인가 배웠다고 여기며 다시 도전하는 과정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모양, 방법, 재료를 다양하게 바꿔 보고, 내적 동기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끊임없는 시도, 실패, 도전을 반복하는 체험 자신의 목표를 이뤘을때의 성취감에 매료되어 새로운 도전을 반복하며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 환경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부족한 부분은 깨닫는 것은 어렵습니다. 조력자의 도움이 있으면 미래 발전을 위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도 하나의 성장으로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호주 교육의 장점은 적절한 평가를 기반으로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성장 가능성을 지원하기 때문에 강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교육의 정책과 실천이 학생, 학부모에게 신뢰받고 도움이 되는 것을 체감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이든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학부모, 학생 모두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신뢰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귀기울여 듣는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이번 연수를 통해 되새겨 봅니다.

특별하지 않지만, 특별한 체육활동

교육안전위원

안 신 일

아이를 키우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힘든 것은 마스크없이 자유롭게 뛰어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년여의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는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는 시기 타국의 상황을 살필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며 한국의 상황과는 사뭇 다른 체험하고 느낀 점을 기록합니다.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은 부모님 손을 잡고 교문까지 이동합니다. 6학년 전까지는 반드시 어른이 동반하여 등교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교실로 바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해서 1시간 가량 자유놀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손윗 학년과 어울리고 소외되거나 빠지는 아이가 없는지 세심히 살피는 교직원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세종의 아침 학교 모습은 고요를 깨우는 등굣길 학생들의 표정을 다시한번 살필 필요가 생깁니다.

체육교육과정에서 독특한 것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파라마타 및 시드니 공립학교의 경우 1일 체육의 날을 지정하여 가까운 근교 공원 및 자연 시설을 이용한 아웃도어 활동, 스포츠 클럽 참여 경기 대회 등으로 각자의 유니폼 및 장비를 갖추고 온전히 체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동이 필요한 경우 버스 운수 담당 부서에 사전 신청을 하여 학교앞 요청시간에 전담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이 가능한 것은 시드니 대중교통 및 버스 운행을 민간회사가 아닌 공공부서에서 전담

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이동이 불편한 학생이 있는 경우는 별도의 차량을 지원받는 등의 사회복지와 교육행정 운영의 협업이 원활히 이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육행정과 자치행정이 같이 운영하는 장점으로 이해됩니다.

코로나 판데믹 상황에서 뉴사우스웨일스 주 교육부가 불과 3주 만에 ‘GetActive@Home’ 이니셔티브(initiative)라는 원격 실내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 프로그램은 자녀들은 활동적으로 운동할 수 있고, 코로나 19 사태 기간 동안 초등학생 자녀의 재택 교육을 돕느라 지친 학부모들에게는 휴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포츠 스타들과 자원봉사 교사들이 제작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홈트라는 단어가 있지만,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두 명의 진행자와 특별초대 손님들이 20~30분간 실내 운동 방법을 소개하고,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일상적인 물건을 사용하여 안전하고 재미있게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이는 뉴사우스웨일스주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진행될 정도로 체육활동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 그리고 중요도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드니에서 20년전 올림픽을 진행하며 경기장은 이제는 시민 체육 참여 시설로 운영되어 각종 프로팀 경기 및 지역 축제의 참여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은 세종에도 시민들이 원활히 참여할 수 있는 체육공간에 대한 조성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방문당일에는 지역 행사를 개최하며 가족들이 모두 저녁까지 넉넉히 참여할 수 있는 참여 콘텐츠(경진대회, 부스운영, 친교 및 교류공간 등)가 풍부하여 사전 기획부터 내실있게 준비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녁에는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고민하는 가운데 저마다 참여하기 쉬운 피트니스 센터가 적절히 구성된 시드니 교육, 시민 참여 시설을 견학하며 아직 세종은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역량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에 앞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건설적이고 미래 아이들에게 보람있는 정책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주산불에서 배운점

교육안전위원

김 효 숙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지난 4월 4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선진 소방문화를 견학하고 사례연구를 하기 위해 호주 시드니를 다녀왔다.

소방강국으로 꼽히는 호주는 지난 2019년 재앙에 가까운 대형산불을 경험한 나라다. 당시 산불로 한반도 전체 면적에 가까운 1873만ha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호주를 대표하는 코알라와 캥거루 등 수억 마리 이상의 야생동물도 목숨을 잃었다. 수개월 동안 매캐한 연기가 시드니를 비롯 뉴사우스웨일즈 등 주요 도시를 뒤덮어 시민들이 공포에 휩싸였다.

4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큰 피해를 입었던 호주 시드니 서쪽 블루마운틴 국립공원은 다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군데군데 나무마다 검은 상흔이 남겨져 있지만 빠른 속도로 복구되고 있는 모습이었다.

호주가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잘 갖춰진 임도'(임산도로)를 꼽는다. 산불이 발생하면 야간에는 헬기를 띄울 수 없고, 임도 없는 지역은 소방인력의 진입이 어렵다. 블루마운틴만 해도 평상시에는 관광·레저 산업 활용으로, 필요시에서는 산불 진화에 최적화된 임도가 굵이굽이 잘 갖춰져 있다.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산직동 산불 사례에서도 임도의 역할과 필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됐다. 임도가 끊긴 구역은 험한 산세 탓에 진화대 투입이 어려웠고, 임도가 잘 닳인 구역은 방화선 역할을 통해 큰 피해를 막았다. 임도 덕분에 장태산 휴양림을 지켜냈다고 파악한 대전시는 임도를 확충하는데 적극 나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관내에 다수의 산이 위치한 세종시도 산불만큼은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3월 전동면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진화된 적이 있다. 작년에는 연서면에 산불이 발생해 진화헬기 3대가 투입되기도 했다.

앞서 중요성이 제기된 임도 또한 일부만 있거나 아예 없는 산이 있다. 오봉산, 운주산, 비학산에는 임도가 존재하지만, 전월산은 캠핑장 있는 곳까지만 임도가 나 있고, 괴하산은 임도 자체가 없다. 특히 원수산과 전월산은 LH로부터 미인수된 지역으로 시에서 정확한 임도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산불 진화를 위한 임도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임도 확보를 통해 화재의 '대응 능력'을 갖춘다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예방 능력'을 높여야 한다. 산불의 주원인 중 하나가 영농부산물 소각이다. 도농복합도시인 세종시도 부주의로 인한 소각 때문에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농산물 소각으로 인한 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하는 경우가 많다.

세종시소방본부 자료에 따르면 농작물 등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소방차량 출동 건수가 2021년 17건에서 2022년 34건으로 2배나 늘었다. 미리 소각 신고를 통해 소방력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농민을 대상으로 세심한 안내와 사후 대책이 요구된다.

호주의 산불과 대응을 보면서 세종시 소방이 나아갈 길에 대해 느끼는 바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화마가 덮쳤던 호주 블루마운틴의 유칼립투스 나무들이 꺾질을 벗으며 다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의 위대함에 새삼 경의를 표한다. 국외연수 과정을 밑거름으로 호주의 교육과 소방분야에서 세종시와 접목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연구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 본 글은 대전일보(<http://www.daejonilbo.com>)에도 게재되었습니다.